

<어려운 외래어(외국어) 평가 목록 구축>의 토론문

이혜경(인천대학교)

본 연구는 기존에 제시되었던 공공언어 개선에 관련한 논의들을 토대로 선별 기준을 종합하여 재구성하고, 어려운 외래어(외국어) 평가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모범이 되고 쉽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할 공공언어가 국립국어원과 국어문화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의 꾸준한 순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외국어와 외래어의 사용으로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러한 공공언어 평가에 대한 연구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도 본 논문을 통해 그간의 공공언어 진단 기준 및 어려운 외래어(외국어) 선별 기준과 사용빈도에 관한 연구 상황을 알 수 있어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하지만 논문을 읽으며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몇 가지 있어 토론자의 책무로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표 2]의 '우리나라 통용 외국어/외래어에 대한 국민 이해도 조사'에서 제시한 목록을 보면 '치킨, 아이스크림, 샴푸, 택시, 티셔츠, 쇼핑' 등 일상생활에 관련한 어휘들이 주를 이룹니다. 이 목록에서 제시한 이해도가 높은 표현들을 공공언어 평가 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중앙정부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보도자료에 사용한 외래어(외국어)와는 어휘의 범주가 전혀 달라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도 CCTV와 TV 두 단어만 평가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앞서 논문의 서론에서 수용자가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것을 평가 목록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취지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은 공공언어 범주(보도자료) 내에서 국민 이해도가 높은 표현들을 선별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2. 이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구축하여 제시한 [표 12]의 '어려운 외래어(외국어) 평가 목록과 외국 글자, 혼합형 목록'이 의미하는 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본 연구에서 분석한 외래어(외국어) 목록은 보도자료에 사용한 빈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고빈도의 순서로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어려운 외래어(외국어)를 평가하는 목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빈도가 높은 것과 어려움의 정도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빈도가 높은 표현들이 사용상의 편의성이나 익숙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제시하신 '어려운 외래어(외국어) 평가 목록'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면 어떨까 합니다.